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저 / 김옥동 역, 열린책들

저자 소개 : 하퍼 리(Harper Lee, 1926~2016)

미국 앨라배마 주 출신의 여성 작가로서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
뒤 항공회사에 근무하며 창작활동을 했다.

대표작이자 유일했던 작품으로 ‘앵무새
죽이기’가 있다. 이의 모티브가 된 그녀의
작품, ‘파수꾼’도 이후에 조명을 받게 된다.

1960년 출간된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
전역에서 호평을 받았고 이듬해인 1961년
폴리처상을 수상했다. 1962년에는 영화화되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2016년 2월, 고향인 앨라배마에서 8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내용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의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와 1930년대 인종차별 및 소수집단이 겪었던 고통을 다룬 소설이다.

주인공 스카웃이 소설의 화자로, 본 소설은 그녀가 6살 때부터 9살까지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어른이 되어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스카웃은 말괄량이 소녀로, 문제가 있으면 머리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인간의 본성’, ‘자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 등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그 중 가장 주된 에피소드는 스카웃의 아버지 핀치 변호사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흑인의 변호를 맡는 내용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집단 린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백인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만다.

〈앵무새 죽이기〉는 인종 차별로 인한 불의와 무죄한 자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은 아이들이 앵무새 사냥을 하려는 것을 가리킨다. 핀치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일깨워주는데, 여기에서 앵무새는 힘없는 유색인종이나 소외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 문학 작품 중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학자들은 이 책이 미국 남부 지방의 계층 문제, 용기와 연민, 성역할에 대한 주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았으며 관용을 강조하고 편견을 비난하기 위한 수업에서의 교재로 사용해왔다.